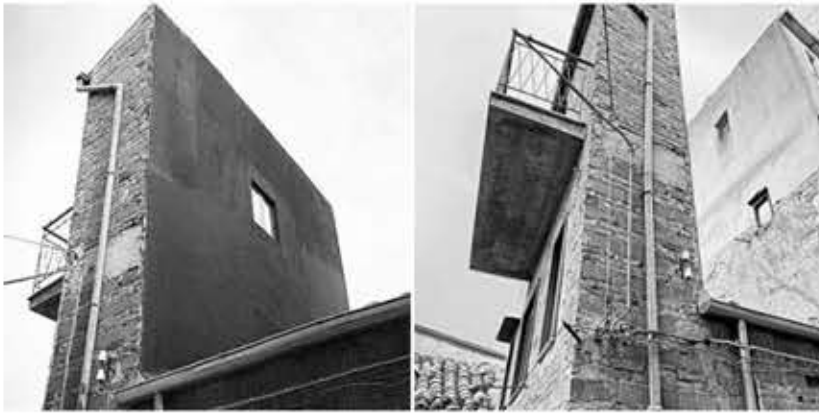


'폭 1m' 세상에서 가장 좁은 집을 지은 이유



▲ 세계에서 가장 좁은 집 이탈리아의 '까사 두 쿠리부'. 사진=pep.ph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페트랄리아 소타나 마을에 가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이한 형태의 2층집이 있다. '복수의 집'으로 불리는 '까사 두 쿠리부'로, '세계에서 가장 좁은 집'이라는 비공식 타이틀도 갖고 있다.

이 집은 1층은 평범한데 2층이 이상할 정도로 좁게 지어졌다. 폭이 1m에 불과해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있을 수도 없을 정도이다. 실제 이 집의 2층은 비어 있는 상

태로 창문과 계단만 있을 뿐 실내에는 아무것도 없다.

대체 왜 이렇게 쓸모없는 집을 지었을까?

이 집이 건설된 시기는 1950년대쯤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집을 높이 증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웃집만 허락한다면 수직으로 위층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까사 두 쿠리부'의 주인은 이웃 가운데 한 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집

을 올릴 수가 없었다. 그는 인접한 건물 바로 옆에 2층을 올리는 데는 이웃집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올릴 때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오로지 이웃의 전망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금과 같은 가장 얇은 집을 지었다.

하지만 쓸모 없었던 이 집은 오늘날 시칠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됐으며, 지금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주요 명소가 됐다.

콜라 공장 옆 살던 비만 악어 다이어트 돌입



▲ 다이어트에 돌입한 플로리다주의 비만 악어 '코카콜라'. 사진=fox13news.com

미국 플로리다주 내 코카콜라 공장 근처에 살던 악어가 살이 너무 쪼 거주지를 옮기고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코카콜라 공장 근처에 살아 '코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은 악어는 최근 살집이 급격하게 불어나 강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거주지도 코카콜라 공장 근처 저수지에서 탬파에 있는 한 악어 농장으로 옮겨졌다.

'코카콜라' 악어는 수년간 같은 곳에 살아왔지만, 최근 서식지인 저수지 근처 울타리에 구멍이 생겼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악어에게 '코카콜라'라는 별명을 붙이고 다가와 계속 먹이를 줘 살집이 급격히 불어났다고 전해졌다. 이 악어는 무게가 450파운드(약 204kg)에, 크기는 9피트(274c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 악어에게 고기와 햄 등을 주로 먹였고, 악어도 이미 사람들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상황에 익숙해진 상태였다. 악어를 구조한 구조대원들은 "이 악어는 극도로 과체중"이라며 "한 번 먹이를 얻어먹는 데 익숙해지면 악어가 사람들에게 먹이를 얻으려 접근하기 시작한다"라고 설명했다.

악어농장 측은 살이 찐 악어에게 생선과 닭가슴살 위주의 식단 조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카콜라 악어가 '다이어트 콜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입으로 물 뿌리기' 기네스세계기록 경신

한 중국인이 1갤런이 넘는 물을 마신 뒤 5분 51초간 입으로 물을 내뿜어 기네스세계기록에 올랐다.

지난 30일 기네스세계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마 후이(35)는 최장시간 입에서 물을 뿌리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1.1갤런(4.2ℓ) 물을 마신 뒤, 이 물을 다시 입으로 내뿜는 도전에서 5분 51.88초의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2016년 에티오피아의 키루벨이 세운 56.36초였다.



▲ 중국의 마 후이가 최장시간 입으로 물 뿌리기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사진=guinnessworldrecords.com

물을 뿌리는 규칙은 입에서 물을 뿜어내는 방식이어야 하며, 물을 조금씩 흘리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중간에 물줄기가 끊기면 도전은 바

로 중단된다. 마 후이는 복부 근육 등을 조절해 위장에 있는 물을 역류시키는 방식으로 5분 넘게 입에서 물을 뿌릴 수 있었다.

기네스세계기록은 "물 분출이 정밀한 근육 제어와 관련된 기술로, 17세기부터 행해져온 '마술'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퍼포먼스를 한 대표적인 공연예술가로는 이집트 출신의 하지 알리(1887-1937), 프랑스의 맥 노턴(1876-1953)이 있다. 맥 노턴은 특히 물고기, 개구리 등을 삼킨 뒤 역류시키는 행위로 '인간 수족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데이비드 블레인이

라는 마술사도 2022년 미국의 지미팰런쇼에 출연해 이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인 바 있다.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Ryan Chang, DPM

레이저 Class IV Laser

최첨단 체외충격파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Ryan Chang, DPM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특별 진료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좀 치료

각종 보험 취급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T.949.484.4405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